



문학에 나타난 유머와 위트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영국인은 대체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풍부한 유머(humour) 또는 위트(wit)를 보인다. 그렇다면 유머와 위트는 어떻게 다를까? 유머는 보통 익살, 해학, 또는 우스꽝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유머는 위트와 달리 인간의 약점을 선의로 보며 비교적 따사로운 인정미를 느끼게 한다. 이에 반하여 위트는 기지, 재치를 의미하는데 남의 의표를 찌르는 재치있는 말을 하는 능력으로, 또한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말한다. 따라서 유머와 달리 자기의 지혜를 뽐내는 태도, 인간적인 냉담성을 시사하는 것이 위트라고 말할 수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의 악랄한 언어라면 “비꼬는 말”(sarcasm), 어떤 사물을 어리석고 가소로운 것으로 표현하는 풍자와 해학을 문학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풍자문학”(satir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인에게 풍부한 유머와 위트가 엿보이는 것은 문학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영국

인이 사랑하는 세계적 극작가인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몇 사례를 살펴본다. 『햄릿』에서 프랑스로 유학하는 아들 레어티스에게 아버지 폴로니우스(형인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의 신하)는 온갖 잔소리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타이르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인은 깔끔한 복장을 선호하는데, “너는 허름한 옷으로 파리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비싼 옷을 네 몸에 걸치라는 것도 아니지만.” 프랑스인은 논쟁을 좋아하는데, “너는 쓸데없이 그런 논쟁에 끼어들지 마라. 주먹 싸움이 되기 쉽거든! 그렇다고 그들과 떨어져 외톨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지.” 폴로니우스의 유머와 잔소리는 배가 출항할 때까지 한없이 계속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상인 안토니오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간의 인육 저당 재판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유머의 일품이다.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린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자기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 준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안토니오의 애인(포샤)은 남장을 하고 재판관이 되어 법정에서 “살은 주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해 샤일록은 패소하고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것이 해학적인 작품 내용이다.

작품 『햄릿』에서 왕자 햄릿은 부왕을 살해하고 왕권을 찬탈한 숙부(클라우디우스)가 기도 중인 장면을 목격하고는 부왕의 참살을 복수하기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숙부를 죽이려다가 잠시 머뭇거린다. “안되지, 살인한 죄인을 기도 중에 죽여 천국에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햄릿은 다른 기회로 미루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 대역 죄인을 천국에 보낼 수 없다는 재치있는 생각과는 역설적인 모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해학이 담긴 문학작품이 많이 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조선 후기(영, 정조 시대) 실학자이며 소설가로 청나라를 배척하는 의식이 강한 인물로 홍대용, 박제가 등과 함께 북학론을 전개한 박지원의 『호질』(虎叱)이 있다. 이 작품은 박지원이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에 갔다가 청 황제가 열하(熱河)에 머물고 있어 그곳에서 사절단 일행이 황제를 배알하고 귀국해 지은 기행문 『열하일기』 중에서 당시 청에서 유행했던 흥미 있는 호랑이 이야기를 참작해 지은 한문 소설이다. 소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호랑이 대호(大虎)가 인육을 먹으려 하는데 마땅한 사람을 생각한 끝에 청렴하다

는 선비를 택했다. 이때 마을에 도학으로 이름이 있는 북곽선생(北郭先生)이란 선비가 젊은 과부와 정을 통한 것이 발각되어 그녀의 아들이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 방을 습격하자 북곽선생은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분노 구덩이에 빠졌다. 겨우 구덩이를 빠져나오니 대호가 앞에 있지 않은가? 대호는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이중인격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했다. 북곽선생은 정신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만 살려주기를 대호에게 빌었다. 북곽선생이 일어나 보니 대호는 사라졌고 근처에서 일하던 농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북곽선생은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어찌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땅이 두껍다 해도 어찌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 『호질』의 풍자 대상은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부정행위와 학문을 곡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며 당시 사회의 모순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작가와 연대 미상의 소설로서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등이 있는데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장면이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흥부전』에서 가난에 찌든 흥부가 심술긋은 형(놀부) 집을 찾아간다. 놀부 집 대문에 들어서자 마침 저녁이라 부엌에서 밥을 푸는 형수가 보인다. 흥부가 형수에게 아양을 떨며 찬밥이라도 한술 달라고 하자 형수가 밥을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린다. 뺨에 묻은 밥알을 집어 먹으며 흥부가 말한다. “형수님, 밥알이 많이 붙

은 주격으로 이쪽 뺨도 때려주소!” 이쯤 되면 흥부의 말이 비굴하기보다는 유머와 풍자가 일품이라 할만하다.

칸트와 헤겔의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독일 철학계의 뒤를 이어 이단적 철학자인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가 19세기 초에 등장했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특히 죽음에 대한)을 연구한 사상가로 그의 철학은 실존철학과 심리학(정신분석)은 물론 근대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19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된 이후 그의 철학은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인 1820년부터 베를린 대학에서 교

직 생활을 했다. 평생 독신으로 삶을 마감한 그는 평소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이유로 외딴 섬으로 유배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도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전집(16곡)만은 꼭 휴대하겠다는 말을 지인에게 했다고 한다. 왜 현악 4중주였을까? 현악 4중주 No. 15, Op 132, A 단조를 듣고 있으면 그 이유를 알 듯하다. 특히 이 곡의 3악장에서 바이올린의 예리한 고음과 첼로의 둔탁한 저음이 융합되어 힘차고도 여린 주제곡이 베토벤의 장기인 변주(variation)로 거듭되는 화음으로 울려 퍼지면 교향곡이나 협주곡에서 맛볼 수 없는 클래식 음악에서의 유머와 위트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KIIF**